

잭 웰치의 마지막 강의

잭 웰치·수지 웰치 지음

‘경영의 신’ 10년만에 신작

우리 시대 가장 위대한 CEO로 손꼽히는 잭 웰치의 10년 만의 신작이 나왔다. 알려진 대로 잭 웰치는 특유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제너럴 일렉트릭(GE) CEO를 맡아 4000% 성장이라는 기적 같은 성과를 일궈냈다. 2001년 GE를 떠난 후에도 전 세계 기업의 경영에 관여하며 40여 개의 인수 합병을 주도했고 100여 개 기업의 컨설팅을 담당했다. 이 책은 지난 10여 년 동안 생각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변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비즈니스 관련자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고민을 다룬다. 저자가 권하는 전략을 소개하면 이렇다. ‘조직이 위기에 처했음을 인정하고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기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생각해 내야 한다’ ‘최고의 직원들은 반드시 집어라’ ‘성과를 내는 사업에만 집중하라’ ‘시장 변화에 맞춰 지속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

〈ALFRED·1만6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첫사랑

이순원 지음

자현아, 동창회 나올거지?

첫사랑은 누구에게나 있다. 대부분 첫사랑은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벗어나 다른 시공간에 존재하는 게 일반적이다. 애뜻함이 남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다. 호석문학상, 동인문학상, 현대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는 이순원 작가가 ‘첫사랑’을 출간했다. 부드러운 문체로 그려낸 자전적 소설 ‘첫사랑’은 산골 음식처럼 깊고 담백하다. 스토리는 주인공 정수가 십 수년 만에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 나가면서 시작된다. 남자 동창들은 단 한 사람으로 인해 마음이 들뜬다. 자현은 산골 시골교에서 모든 아이들의 관심을 받았던 가장 예쁜 친구다. 과연 자현이 동창회에 나올 것인지, 나오면 그녀가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이 된 남자 동창들은 온통 그녀에게 관심이 쏠려 있다. 이렇듯 소설은 잊고 지냈던 순수한 시절로 독자들을 초대한다.

〈북극곰·1만5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평범한 바이러스는 어떻게 ‘살인자’가 되었나

바이러스 대승적

앤드루 니키포록 지음



온 나라를 들끓게 한 메르스 사태가 진정국면에 들어서고 있다. 메르스는 예전의 호환마마 못지않은 무서운 역병으로 인식되었다. 부지불식간에 침입하는 바이러스는 더 이상 하찮은 존재가 아니다.

메르스로 인해 지역 경제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크나큰 피해를 입었다. 관광객이 감소한 데다 농특산물 판매마저 위축돼 국가 경제에는 깊은 골이 패었다. 산업연구원(KIET)은 ‘메르스 확산이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메르스 사태가 3개월 이어질 경우 최소 2조5612억 원에서 최대 4조6366억 원의 관광 지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조류독감, 광우병, 구제역, 사스, 신종플루 등... 잇을 만하면 찾아오는 전염병은 과거에 겪었던 공포까지 들고 온다.

이들은 전염성이 매우 높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온갖 바이러스를 ‘생물학적 침입자’라고 말하는 이가 있다. 기자 출신이자 논픽션 작가인 앤드루 니키포록이 펴낸 ‘바이러스 대승적’은 평범한 바이러스가 어떻게 세계를 위협하는 ‘살인자’가 되었는지를 추적한다.

H5N1(고병원성 조류독감)을 일으키는 인플루엔자 A의 아형)은 1997년 홍콩에서 최초 인간 감염 사례가 발생했다. 18명이 발병하고 6명이 사망한 뒤 홍콩 당국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2003년 12월에는 한국 가금류에서 H5N1이 확인되었다. 같은 해 이미 사스가 대유행을 했던 터라 전염병에 대한 공포는 최고에 달해 있었다.

21세기를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대상은 바로 생물학적 유행병이다. “우리는 지금 생물학적 시한폭탄을 끌어안고 있다. 성대한 바이러스 파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말이 과언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 바이러스가 대부분 인간에 의해서 조래했다는 사실이다. 급격한 세계화는 세상을 하나의 지구촌으로 만들었다. 온갖 미생물 침입자들에게 날개를 달아준 격이 된 것이다.

궁극적으로 세계 65억 인구의 상거래, 여행, 히치하이킹(어디론가 이동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차를 타려고 하는 행동)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경제 행위에는 그에 상응하는 생물학적 거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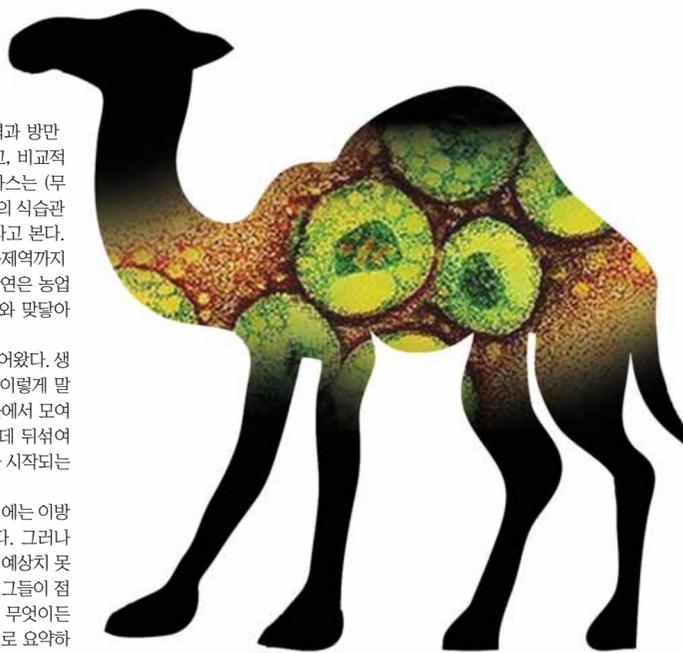
가 수반된다. 달리 말하면 곰팡이와 박테리아가 세계를 누비는 시대에 진입한 것이다.

저자는 광우병은 국제 무역과 방만한 권력 관계에서 파생되었고, 비교적 게으른 바이러스로 알려진 사스(무엇이든 식재료로 삼는 광동성의 식습관에 힘입어) 해외로 퍼져나갔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조류독감부터 구제역까지 600종이 넘는 가축 질병의 만연은 농업계에 만연한 ‘규모 지상주의’와 맞닿아 있다고 설명한다.

바이러스는 문명과 함께 들어왔다. 생태학자 찰스 엘튼은 50년 전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지금 세계 곳곳에서 모여든 수천 종의 유기체들이 한데 뒤섞여 자연에서 무시무시한 ‘전위’가 시작되는 역사적인 시대에 살고 있다.”

‘생물학적 침입자들’은 초기에는 이방인처럼 잠잠한 특성을 보인다. 그러나 어느 순간 급격히 불어나면서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한다. 저자는 “그들이 점령해서 식민지화하는 대상이 무엇이든 그들의 지명적 활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생명의 율리시드”라며 “감염원들은 세상을 좀 더 확립화하여 이미 침입에 성공한 침입자들이 침략의 범위를 넓혀가도록 후원한다”고 강조한다.

침입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번식을 시작하면 생태계 전체는 심각한 영향을 받는다. 인류 제국의 운명까지 바뀌는



건 시간문제다. 이들은 순식간에 번식하고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습성이 있기 때문이다.

“세계무역이 날개를 달아준, 세상의 모든 해충과 잡초와 세균이 무차별적으로 뒤섞이면서 사방팔방에서 주 1회 간

격으로 비상사태가 연출되고 있다... 저명한 학자 루돌프 피르호는 “환경이 아무리 끔찍해도 습관화되면 참아낼 수 있는 것”이 인류에게 내린 최악의 저주라고 한탄했다.”

〈알마·1만8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버지니아 울프·이언 매큐언의 글쓰기 습관은?



최고의 작가들은 어떻게 글을 쓰는가

루이즈 디살보 지음

“작가가 글쓰기에 사용하는 에너지는 저택을 지을 수 있는 정도다. 그런 의미에서 예술 작품은 ‘쓰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짓는’ 것이다.”(스티븐 킹)

“나의 소설은 수개월 동안의 스케치와 낙서에서 탄생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작업이 매우 느려야 한다는 것이다.”(이언 매큐언)
버지니아 울프, 헨리 밀러, 존 스타인

백, 엘리스 먼로, 이언 매큐언... 이들 작가들은 세계 문학사에 빛나는 작품을 퍼 냈다는 공통점이 있다. 과연 이들은 어떻게 글을 썼을까?

뉴욕현대 칼리지에서 창의적 글쓰기를 가르치는 루이즈 디살보 교수가 ‘최고의 작가들은 어떻게 글을 쓰는가’를 펴냈다.

작가란 어떤 존재이며 이들은 어떻게 쓰는지, 40년간 작가들의 작업 습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단순한 글쓰기 비법이나 작가들의 편지와 일기, 인터뷰를 읽고 그들의 공통점을 추출했다. 그것은 다름아닌 ‘느린 글쓰기’다.

‘느린 글쓰기’는 말 그대로 명상하듯 사색적으로 작업하는 글쓰기를 말한다.

작가로 하여금 직관적 도약을 가능하게 하고 사람들의 가슴에 오래 남을 문장을 탄생시킨다.

일레로 어니스트 헤밍웨이는 ‘무기여 잘 있거라’의 결말을 47가지 버전이나 쓴 후에야 결정했다. 버지니아 울프는 첫 소설 ‘출향’을 출간하는 데 7년이나 걸렸으며 살만 루시드는 ‘한밤의 아이들’을 완성하는 데 무려 16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책은 전반적으로 ‘느린 글쓰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들을 생각하게 한다. 두려움, 불안, 비판 등 글쓰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감정들에 대처하는 방법도 제시한다.

〈도서출판 예문·1만6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세계 부조리를 겨냥한 만평의 힘



세상을 향한 눈

장크리스토프 빅토르 지음

위험과 테러에도 불구하고 세계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비판과 풍자의 펜을 쉽게 움직이며 역사적 장면을 한 컷에 포착한 전 세계 만평가들의 작품이 한 권에 담겼다.

투철한 비판 의식으로 강직하게 역사의 증인 역할을 해온 전 세계 만평가 86인의 230여 작품을 한데 모은 책 ‘세상을 향한 눈’은 사회의 부조리를 겨냥하

는 만평의 힘을 삼키시키고, 온갖 위협 속에서도 펜을 놓지 않는 만평가들의 노고를 보여준다.

프랑스 방송 아카데미에서 세계의 정치·지리학적 이슈를 다루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저자 장크리스토프 빅토르는 1989년부터 2012년까지 세계사 가운데 인류가 꼭 기억해야 할 역사적 사건들을 그린 작품을 선정했고, 만평마다 윌트있는 단평을 더해 한 권의 역사책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

책 표지의 한 컷은 시리아 정부를 비판하는 만평을 그렸다는 이유로 친정부 민병대에 폭행당한 만평가 알리 페르 자트를 그린 익명의 만평이다.

〈문학동네·2만2000원〉

/이보림기자 boram@kwangju.co.kr

www.doidam.net

펜션매각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아름다운 펜션(성업중)

광주공인중개사 임야 상가 전문 정주경 010-6460-2834

건평 1093㎡(330평) 대지(잡종지) 17680㎡(5350평)

- 1 문평 IC에서 5분거리
- 2 2차선 도로변 남향 접근성 양호
- 3 연수원, 기도원, 요양원, 요양병원등 적합

호남유일 이태리가구 직수입 전문점, 2년만의 빅세일 7월 25일까지

이태리가구 SALE

www.hong79.com ☎1899-0240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 58-15 홍스케이스 가구빌딩 SINCE 1990